



북미주개혁교회



하나님의
다양하고 하나된
가족

1996년 총회에 제출된 본 연구 위원회 보고서는 북미주 개혁신교단과 인종관계 해소 사무실에 마련한 것입니다.

북미주 개혁신교단은 독자들을 배려하여 본 보고서의 번역본을 모국어로 제공합니다. 번역의 질에 관한 의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총회 사무실(editors@crcna.org)로 연락하여 교정할 내용에 대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copyright 1996 Christian Reformed Church in North America
1700 28th Street SE
Grand Rapids, MI 49508-1407

인종·민족적으로 다양한 하나님의 가족을 성장시키기 위한 성경적·신학적 원리 규명 위원회

I. 총회의 요구

1992년 다민족 회의에 참석한 총대들의 요청으로 1992년 총회는 다음과 같은 건의안을 채택했다.

1992년 총회는 인종·민족적으로 다양한 하나님의 가족을 성장시키기 위한 성경·신학적 원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진술하도록 연구 위원회를 임명한다. 연구내용은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나, 여기에 제한되지 아니한다.

- a. 다민족 지도자의 개발과 채용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
- b. CRCNA 정치에 채택된 지도자 기준에 대한 평가.
- c. 인종·민족적으로 다양한 하나님의 가족을 성장시키는데 쓰일 수 있는 교회 개척 원리들을 위한 성경적 지침들.

근거들:

- a. 현재 CRC 교단은 다문화적 비전을 위한 뚜렷한 성경적, 신학적 기반이 부재하다.
- b. 과거와 현재 다문화주의에 대한 CRC의 대처는 잘 개발된 성경적 진술보다는 사회학적 요인들에 더 기초를 둔 것이다.
- c. 인종차별은 십자가의 구속적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점증하고 있는 인종간 갈등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통해 다뤄야 한다.
- d. 다민족 컨퍼런스가 이 행동을 요구한다.

(Acts of Synod 1992, pp. 720-21)

II. 배경

A. 인종문제에 대한 이전 총회 선언문들 개관

1. 1958년에 열렸던 개혁주의 에큐메니칼 협의회(**Reformed Ecumenical Synod**,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포체프스트롬에서 개최)의 선언문들에 의하여 1959년 총회는 개혁주의 에큐메니칼 협의회 선언문들을 총회 선언문으로 채택했다(Acts of Synod 1959, pp. 82-84).

2. 미국내 도시들에서 발생한 예기치 않았던 인종분쟁의 상황 속에서 1968년 총회는 인종간 화해를 위한 기도의 날을 요청하고 인종간 화해에 대한 복음의 요청을 확인하는 선언문을 채택했다(Acts of Synod 1968, pp. 18-20).

3. 개혁주의 에큐메니칼 협의회가 1968년 암스테르담 대회에서 채택했고 그 후 1972년 오스트레일리아 대회와 1976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 대회에서 계속 개정한 인종관계 해소 결의문은 1969년 총회와 1977년 총회에서 지지를 받았다(Acts of Synod 1969, pp. 50-52 ; Acts of Synod 1977, p. 34).

B. 북미주 개혁교회의 인종, 민족적 다양성에 대한 개관

북미주 개혁 장로교회의 여러 교회들과 교인들은 1857년 미시간 주 서부에서 탄생한 이래 거의 백년 동안 극소수 독일계 미국인 교회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화란계 미국인 교회로 유지되어 왔다. CRC가 타인종과 타문화권에 선교사들을 파송하긴 했지만, CRC "국내선교"의 과제는 주로 캐나다와 미국 내에서 기존 교회들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 흩어져 있는 화란계 성도들을 모으는 일에 집중되어 있었다.

초창기에 있었던 주목할 만한 예외는 교단의 미국 원주민 선교 활동이었다. CRC는 특히 아리조나 주와 뉴멕시코 주에 살았던 나바호 족과 주니 족들에게 지속적인 선교를 펼쳤는데, 이 사역은 1896년 두 선교사가 가정의 사역에서 시작되었다. 1920년대에 그랜래피즈와 시카고에서 비화란계 이웃들을 위한 도시선교 활동이 시작되었다. 비록 "회심자"들이 대개 정식 목회자가 아닌 사람들이 인도하는 채플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타교단에서 영입된 영어권 교회에 등록하거나 하는 식으로 거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말이다.

본 교단이 비화란계 신자 집단에 동일한 신분을 부여하기까지는 꼬박 한 세기가 소요되었다. 1956년 뉴멕시코 주 깬럽 시에서 신자 모임이 조직된 것에 자극을 받은 1958년 총회는 전원이 나바호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교회를 준 교회(associate_church)에서 정식 교회(full church)로 지위를 격상시키도록 노회에 권고했다. 또한 1950년대에는 이웃 지역 채플들의 열등한 지위에 대한 논쟁이 점차 발생하였다. 이와 동시에 CRC는 인종과 민족의 경계를 수 차례 넘어서고 있었다. 유대인 사역과 중국인 사역이 시카고와 뉴욕에서 시작되었고, 흑인 목사들이 그랜래피즈와 뉴욕에서 신임장을 받았으며, 1960년대 이후 뉴저지와 플로리다에서 히스패닉 사역이 시작되었으며, 시카고와 LA에서 한인 교회들이 가입하였고, 동남아시아계 이민자들 가운데 사역이 시작되었으며, 다민족 회중의 구성에

돌파구가 보였다.

1959년 총회는 개혁주의 에큐메니칼 대회 of 인종에 대한 12개항의 선언문을 채택했는데, 이 선언문은 처음에는 교단 정치에 별로 무관해 보였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까지 도시들이 불타고 국가의 지도자들이 암살당하면서, CRC는 인종 관계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을 수 없었다. 론데일 교회의 흑인 자녀들이 시카고 서부에 위치한 티모시(Timothy) 기독교 학교에 입학이 거절되자, 이 문제가 총회에 상정되었다. 그 결과 CRC 국내 선교부의 후원 아래 인종위원회(Race Commission)가 결성되었다.

1971년 총회는 인종위원회를 총회 인종관계 위원회(Synodical Committee on Race Relations - SCORR)로 대체시켰다. SCORR는 전임 직원을 두고 교회와 사회에서 인종차별 척결을 위한 사역을 하도록 요구를 받았다. 또한 총회는 소수민족 출신자들도 동등한 기회를 인정하였으며(아래의 주를 참고할 것) 교단의 기관·단체들에게 정책·실천 면에서 사회정의를 진작시키도록 권고하였다. 교회들과 기관들과의 광범위한 협력관계를 통해 SCORR는 북미주개혁교회 안에서의 소수민족 지도자들을 개발하는 지원을 계속했다. 또한 SCORR는 북미주 개혁교회 교단 안에서나 그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 남아프리카든, 시카고 남부든, 그랜래피즈 남부든 - 인종·민족적 다양성과 동등성을 선명하게 옹호했다.

주: 모든 개인은 민족의 기원을 가진 민족적인 존재이면서 특정 상황이나 환경에선 소수집단에 속하게 될 수 있다지만, 본 보고서에서 쓰는 소수민족이라는 말은 비-앵글로 또는 비-코캐시언 개인과 집단을 지칭한다.

북미주 개혁교회는 인종·민족적으로 얼마나 다양한가? 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현재, 본 교단의 30만 교인들 중, 150여 소수·다민족 교회에 소속된 소수민족 교인의 총수는 약 1,5000명으로 5퍼센트로 추산된다. (국내 소수민족 평균은 20-25퍼센트를 차지한다.) 이 5퍼센트 가운데 50여개 이상의 한인교회에 7,000명의 한인이 출석하고 있으며, 8000명의 교인들은 압도적으로 흑인과 중국인, 히스패닉, 미국 원주민, 동남아시아, 다민족으로 구성된 교회들에 소속되어 있다.

점증하는 이 다양성은 대부분 성장지향형 교회들과 노회들과 다른 기관들의 협력을 얻어서 CRC 국내 선교부에 의해 촉진되었다. 지역에 기반을 둔 *지도자 훈련 프로그램들과 견습생 직책*(예전에는 *다민족 지도자 모집*이라 불리움)을 통해 수 십명이 CRC에서 지도자 사역을 위한 계속 교육을 받고 있다. CRHM 기금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150개 신생 교회들 중 절반 이상이 소수·다민족 교회이며 그 교회들은 대부분 소수민족 목회자들이 인도하고 있다. 국내선교부의 *소수민족 사역부 디렉터*들은 그들과 관련된 교회들과 지도자들과 계획을 수립하는 집단들과 지배문화 협력자들에게 핵심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소수민족 사역 간사들은

상황화된 자료들의 개발과 훈련 교재들의 개발을 감독하며 교회 개발 정책 형성에 한 목소리를 내며 **CRHM** 이사회에서와 다른 전략적 요직에 소수민족계 지도자를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다민족 지도자 양성을 위한 **CRC**의 노력은 교단의 여러 정황에 반영되었다. 인종적 포용성을 위한 북미주개혁교회 이사회의 헌신은 여러 방면에서 나타났지만 특히 인사부 디렉터로 흑인을 임명한 것에서 드러난다. 캐나다의 **CRC** 카운실은 캐나다 인디안들과 메티스족(프랑스계 백인과 인디언 사이의 혼혈인-역주)의 필요과 관심을 처리하는데 헌신하고 있으며, 최근 또한 전국적인 대회의 도움을 받아 캐나다 내의 인종차별의 원인과 영향을 소멸시키기 위해 연구하며 일하고 있다. **CRWRC**는 소수민족계 인사들을 본부와 지역의 직원으로 임명하고 소수계 사회의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세우는 일에서 입증되고 있다시피, 인종과 민족 문제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CRC** 출판부는 의도적으로 소수민족 출신자들을 고용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에 포함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다민족 독자들을 의식하여 커리큘럼에 반영시키고, 소수민족 서적상들과 저자들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교단의 교육기관 중에서 칼빈 대학은 다문화 지도자 개발을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채택하고 있다. 여기에는 소수자 문제 대책 위원회, 총장 보좌 다문화 자문위원회, 잠재적인 새 교원을 위한 소수자 펠로십, 다양한 특화된 직원들을 소수민족계로 충원하기, 소수민족 학생들을 위한 멘토링 서비스, 그리고 매년 열 명의 소수민족 학생들에게 특별 장학금을 지급하는 **MOSAIC 2000** 장학 프로그램 등이 있다. 칼빈 신학대학원은 아직도 최초의 비백인 교수를 채용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 아쉬워하고 있다. 아울러 칼빈 신학대학원은 다양한 소수민족 훈련 프로그램을 세웠으며, 소수민족계 지도자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약 30퍼센트의 비 백인 학생을 유치하고 있고, 소수민족 지원을 위한 직원과 특별 강사들을 고용하고 있다.

CRC가 인종문제 해결을 위해 칭찬받을만한 목표들을 추구하고 이미 오래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과 진행은 완만하였다. 아직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야 할 길이 멀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기관들에서 일하는 소수민족 인력은 비록 숫자는 늘어났지만 주로 보조원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행정직과 교수직, 교단 이사회와 위원회, 총회 대의원 등에서 소수민족 공동체를 대변하는 비율도 낮은 편이다.

- 소수민족 목회자들 중에서 비전통적 방식으로, 예컨대 성경학교나 지역 훈련 프로그램이나 다른 신학대학원 등을 통해, 훈련을 받은 인원이 상당히 많다. 목회자 신임 문제도 특별한 필요와 은사에 근거하거나

교리상의 대화나 전도자로 안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역을 허락하는 비전통적 방식을 따르고 있다. (요점은 비전통적 경로를 무시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화하는 교회의 변화하는 필요에 비추어 전통적 방법을 재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소수민족 목회자는 앵글로계 목회자보다 낮은 수준의 사례비를 받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부분적으로 회중의 규모가 더 작고(교단 전체 평균 315명에 비하여 평균 100명임) 그들 가운데 전도사들과 이증직업 지도자들의 비율이 비교적 높으며, 그들이 섬기는 지역사회에 경제적 현실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동시에 인사혜택과 제반사항에 관한 CRC의 기존 정책과 관행을 재고하는게 필요하다.

-교단의 생활 전반에 걸쳐서 유색인 성도들은 소속감의 문제와 씨름하고 있다. 다민족 교회나 압도적인 앵글로계 교회에 다니는 소수민족 교인들은 안전지대를 다수민족 형제자매들보다 더 크게 넓히려는 무언의 압력을 받곤 한다. 소수민족 회중의 지도자들은 누가 그런 규칙을 만들었는지 의아해하며, 교단의 여러 정황 속에서 관망하는 경향이 있다. 소수 민족 출신의 사람들이 너무 많이 CRC를 떠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교단의 개혁주의 세계관과 인생관 때문이 아니라 가족적인 식탁으로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천년의 문턱에 선 CRC교단은 복미주의 급격한 인구변동에 대해 의식하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현재 캐나다와 미국의 다수자 문화가 한 세대만 지나도 더 이상 다수자로 남아 있지 못할 거라는 극적인 현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민족간 균형의 변동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어두신 열방의 인종·문화적 다양성을 더 신실하게 반영하는 더 포괄적인 교회가 되는 것-에 대한 심오하고 새로운 깨달음을 체험하는 놀라운 기회가 될 것이다. 이것은 복미주 개혁 교단에 참으로 신나는 도전이다. 본 교단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이미 하나님의 다양하고 다인종이며 다민족인 가족으로 변하고 있다. 우리는 별로 오래되지 않은 과거에 완만하고 고통스럽게 배웠던 교훈을 통해 우리가 자신을 초월하는 교훈을 얻을 수 있고,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도성을 표현하려는 노력을 통해 다양성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기도한다.

III. 성경·신학적 원리들

A. 서론

“인종·민족적으로 다양한 하나님의 가족의 성장에 대한 성경·신학적인 원칙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진술”하라는 총회의 요구에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12가지 원칙들을 천명하는 바이다.

세 가지 도입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는 이러한 성경적 원칙들을 표현할 틀로서 창조-타락-새창조의 틀을 선택했다. 새 창조라는 말은 공생애-죽음-부활과 더불어 시작하여 새 하늘들과 새 땅에서 충만히 성취될 그리스도의 재창조와 화해의 사역을 가리키는 포괄적인 용어다.

2. 아래에 표현된 원칙들의 대부분을 관통하는 공통적 중심축은 “통일성과 다양성”의 실재다. 하나님의 세계에는 “하나됨”과 “많은” 즉 통일성과 다양성이 있다. 우리는 삼위일체 가운데 계신 하나님 자신에게서 이 실재를 본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안에서 통일성과 다양성이 완벽한 조화 가운데 작용하는 모습을 본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구원사역을 통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그 분 안에서 통일된, 그러나 다양하고 포용적인, 새로운 몸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본다. 아래의 두 구절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 노래의 가락을 잘 포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고전 8:6),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계 7:9).

성경을 연구하고 그 메시지를 새롭게 듣고자 노력하면서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종·민족적 다양성과 관련한 성경 메시지에 대한
간결하고 근본적인 진술이라고 판단한다. 이 진술은 주로 성경 안에 있는
통일성-다양성 주제에 달려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인종·민족적으로 다양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로서 서로 화해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진술이 선언이자 판단이며 사실이자 명령이라고 이해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프로그램 안에서 만물이 존재하는 방식에 대한 진술이며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이미 그러한 바를 이루도록” 요청하는
예언자적 요청이기도 하다.

3. 다음은 이러한 문제들을 논의할 때 사용된 용어들의 기본
정의(定義)들이다.

인종 - 사회적 의미를 가지는 생물학적으로 유전된 특징들을 공유하고 있는 남녀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

민족성 - 특징적인 사회적 정체성을 제공하는 조상의 기원이 같은 지역, 전통적 언어, 역사적인 종교를 보통 공유하고 있는 남녀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이다. 이 민족성 정의에 "역사적 종교"라는 말을 포함시켰다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가 하나된 요소들로 기독교가 아닌 어떤 종교를 축하·공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문화 - 한 민족의 집단생활에 제도화된 가치관과 신념. 물려받은 의미와 도덕, 신념, 및 행동방식을 보존시켜 주는 외적 훈련

편견 - 특정 집단의 사람들과 동일시하고 그것에 근거한 타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나 전제.

인종차별 - 사람들을 인종에 근거해 대하는 편협한 태도/행위. 인종차별은 대인간·제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자민족 중심주의 - 자신의 민족·문화적 가치관과 선호도가 만인 공통이라고 전제하거나 그래야 한다고 믿는 경향.

고정관념 - 개인이나 집단을 부당하게 분류하는 지나치게 단순화된 의견이나 무분별한 판단.

B. 인종·민족적으로 다양한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성경·신학적 원칙들

창조

1.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풍요로우며 그 다양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창조 기사(창 1장)는 흑암에서 빛이, 위쪽 궁창에서 아래쪽 물이, 물에서 땅이 나뉘는 수많은 나뉘므로 이뤄져 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서로 다른 수많은 꽃들과 나뭇잎들, 별들, 행성들, 산들, 초원들, 물고기들, 그리고 조류들로 놀라우리만큼 다양하다. 하나님은 다양성을 사랑하신다. 다양성과 차이점은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의 그 세계 안에서 풍요함을 더해주는 것들이다.

이 다양한 창조세계의 으뜸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의 모든 인간은 예외없이 왕적인 위엄을 부여받았으며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는데 동참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육·번성하도록 축복하심에 따라, 그 모든 자손들도 예외없이 이 왕적 위엄에 똑같이 동참하고 있다. 인류는 하나님 및 다른 사람들과 서로 의와 거룩함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하나님을 닮았다.

인류는 모든 사람들 각각이 독특할 정도로 다양하다. 더욱 심오하게 인류는 남성성과 여성성으로 이러한 통일성과 다양성의 심오한 원칙을 표현하고 있다. 남성성과 여성성을 나눠 가진 인간들은 선한 창조세계에서 다양성을 발휘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일종의 모델이다. 남녀간의 차이점들은 축하와 기쁨의 근원이다(창 2:23). 남녀간의 차이점들은 서로 이끌리게 하며, 서로 보완하게 하며,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한다. 다양성은 풍성하게 해준다. 다양성은 창조적 에너지를 발산하며, 그것은 다시 다양성을 증진시킨다. 다시, 인간 가족 내의 다양성과 차이점은 나쁜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풍요롭게 해준다.

2. 창조된 세계는 그 모든 다양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세계를 창조하신, 한 분 하나님 안에서 연합한다.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성경 전반에 걸쳐서 분명하게 확증된다. 신약성경은 세상의 창조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여하셨다고 설명한다. 이와 관련하여서 세 개의 특정한 본문을 언급할 가치가 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요1:1-3).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골 1:15-17).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 1:1-2).

근본적인 진리들을 제시하는 위 세 본문에서 우리는 다음 진리들을 배운다.

a.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 때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b. 창조 때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은 “만물”에 관한 것이었다.

“만물”(panta)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그리스도께서 창조에 참여하신 범위-모든 것을 포용하는 범위-를 정의하는 모든 구절들에 사용되고 있다. 요한은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도 지어진 것이 없다”고 말함으로써 이 사실을 추가로 강조한다.

c. 이 구절들에 사용된 헬라어 전치사들은 만물이 창조될 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풍부하게 또 얼마나 신비스러운 정도로 관여하셨는지를 강조하고 있다. 만물은 그리스도 안에서(en, NIV는 "by"로 번역함), 그리스도를 통하여(dia), 그리스도를 위해(eis) 창조되었다. 어떤 식으로든 그리스도는 창조의 근원이시며(en), 창조의 매개자(dia)이시며, 창조의 목적(eis) 이시다.

d. 창조자 그리스도는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바울은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다”(골 1:17)라고 말한다. 만물은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됨으로써 일치와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성경의 이러한 가르침은 적어도 세 가지 이유로 해서 우리의 연구 목적에 중요하다.

첫째, 우리는 다른 민족들과 다른 존재들 가운데서 통일성을 발견하고자 할 때 사물들의 본성에 낯선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퍼즐 맞추기를 할 때 모든 조각들이 서로 맞도록 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맞추어나가는 것과 같다. 퍼즐 맞추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 서로 다른 퍼즐 맞추기 상자에서 나온, 다른 종류의 조각들로는 퍼즐 맞추기를 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대한 우리의 그림은 앞에서와 같이 서로 종류가 같은 퍼즐이며 뒤의 퍼즐 맞추기가 아니다.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과 사물과 연합하려고 할 때, 우리는 사물들의 본성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둘째, 좀 더 좁게 인류에게 이 사실을 적용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물의 하나됨에 대한 이 진리는 모든 민족들의 근본적인 통일성과 평등성을 함축하고 있다. 성경은 분명히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서 똑같이 나왔다고 가르친다. 바울은 아담을 가리키면서 “한 조상으로부터 모든 족속들을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셨다”(행 17:26, NRSV)고 말한다. 창세기 3장에 따르면, 하와는 “모든 산 자들의 어머니”다.(20절). 모든 인종에 속한 모든 인간은 최초의 부모에게서 공통으로 기원하였기에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기독교 신앙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르다거나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면에서 부족하다거나 하는 주장을 허용하지

않는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이루신 그 통일성은 알려지지도 검증되지도 않은, 새로이 창조된 통일성이 아니었다. 그것은 본래의 통일성이 회복, 재창조된 것이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화해될 때, 과거에 이미 창조되었던 그 세계로, 그리고 만물이 그에 의하여 그 안에서 그를 통하여 동일하게 창조되고 존재하게 해주었던 그 분에게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사역을 할 때 이 사실이 그 소망과 방향을 설정해 준다.

3. 인류와 창조된 실재의 통일성과 다양성은 삼위 하나님의 통일성과 다양성(즉 그분의 하나이심과 세 분이심)을 반영하고 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한 고전적 진술에서 교회는 하나님을 존재상 하나이시며 위격상 세 분이라고 말해왔다. 삼위일체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삼위일체의 이 기본 교리를 인간 사회의 모델로 발전시켰다. “사회적 삼위일체”는 인간 가족의 통일성과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본성에 뿌리박고 있음을 주장하는 삼위일체 신학을 발전시켰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이미 자신을 삼위 공동체 안에서 계시하신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또한 요한복음에서 성부는 성자 안에 계시고 성자는 성부 안에 계신다고 말한다(요 10:38; 14:11).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며, 행하시는 모든 일을 아들에게 보여주신다(요 10 : 15). 아들이 아버지에게 되돌아갈 때, 아버지는 다른 보혜사인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요 14:16-18). 아들은 “우리 [아버지와 아들]가 하나인 것처럼”(요 17:11) 제자들도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신다.

위격 간의 교제를 주고 받으시는 삼위 하나님은 인간 사회의 첫 모델이다. 하나님은 하나됨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다. 또한 하나님은 삼위로써 우리의 다양성을 긍정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교제 안에서 창조하셨고 우리를 그 교제로 부르신다. 그 교제는 이미 삼위 하나님 안에서 계시된 것이다.

타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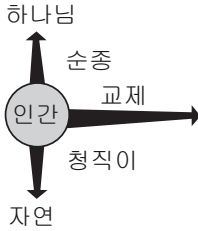
4. 공동체의 붕괴는 죄의 근본적인 결과다.

a. 하나님의 형상과 관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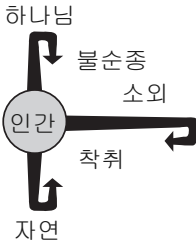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가 되었다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의

의미에 대한 어떤 설명에도 중심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관계맺는 능력**이다.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들이다. 주고 받기, 사랑하고 사랑받기, 창의·고무적 동역, 그리고 공동체 세우기는 인간됨과 인간 공동체의 중심 활동들이다.

칼빈 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였던 고(故) 앤토니 후크마 박사는 인간이 삼중적 관계, 즉 대(對)신, 대인, 대(對)자연 관계로 창조되었다고 말하곤 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이 관계들은 순종과 사귄과 청지기의 관계였다.



죄는 이러한 관계들을 왜곡시킨다. 우리는 지금 대신 관계에 있어 불순종하고 있으며, 대인 관계에 있어서 서로 소외되어 있으며, 대자연 관계에서 청지기로서 일하는 대신 자연을 수탈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비록 죄가 이 관계들 중 하나에 미친 영향을 모든 관계에 미친 영향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다 할지라도, 이 보고서에서 우리의 우선적 관심은 죄가 인간 상호 관계에 미친 영향에 있다.

b. 죄는 인간관계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인간 상호관계에 나타나는 죄의 영향에 대한 성경적 연구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성경적 원칙을 확인할 수 있다: *죄는 하나님께서 인간공동체가 인간 안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풍요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의도하셨던 바로 그 정확한 지점을 가장 교활하게 파괴하는 경향이 있다.*

1) 남녀 관계에 적용되는 원칙

창세기 3장은 우리 인간 상호간 관계에 죄가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토대가 될만한 사례 연구이다.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진 이후 여호와께서는

뱀을 저주하시고 아담과 하와의 죄가 그들의 삶에 끼칠 영향에 대해 선언하셨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특별 사항은 죄가 그들 상호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다.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말씀하심으로써 창세기 3장 16절은 아담과 하와에 대한 죄의 영향을 요약해주고 있다. 이 구절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성경학자들 간에 의견이 구구하다. 어떻게 해석하든지 이 점만큼은 분명하다. 즉 죄가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사이의 건강한 관계를 앗아 가고 그 관계를 왜곡시켜서 소외가 발생하고 되고 교제와 공동체에 해를 끼친다는 것이다. 죄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잘 표현하게 해주는 관계를 앗아가며 그 관계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그 관계를 왜곡시킨다.

2) 다른 관계들에 적용되는 원칙

다시 논의되는 원칙은 이것이다: *죄는 인간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풍요케 하고 잘 드러내 주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인간 공동체의 바로 그 점들에 대해 대단히 음흉하고 파괴적인 경향이 있다.* 혼인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됨” 즉 주고 받기, 헌신을 결단하고 유지하기, 생육, 및 즐거움을 개발하고 표현한다. 우리는 타락으로 인한 죄악이 얼마나 심하게 결혼생활을 해치고 있는지 목격했다.

이 원칙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도 잘 나타난다(창 4장). 형제 사랑에는 부요와 아름다움이 풍성하다(다윗은 요나단을 형제처럼 사랑했다[삼하 1:26]). 그러나 이 관계는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기와 미움과 폭력이 발생하는 배경이 되곤 한다.

이 원칙을 더 심도있게 예시하기 위해서, 인간의 언어와 성별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표출시키는 인간성의 두 측면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언어는 의사소통과 사상표현과 진리표명을 위한 놀라운 수단이다. 이 활동들은 모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려내는 핵심적인 방법들이다. 그러나 타락으로 말미암아 언어는 인간 공동체를 파괴하는 핵심 무기가 되었다(약 3:1-12). 또한 인간의 성별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주고 받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모하는 사랑을 표현하는 놀라운 수단이다. 그러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성별은 여러모로 왜곡되었다(레위기 18장).

본 보고서의 주제에 대한 이 보다 일반적인 원칙을 확대함으로써 우리는 인종과 민족의 다양성이 다른 사람들의 삶과 생각과 관계의 방식들을 보면서 상호 인정을 해주고 더 큰 자기이해를 가지는 기회와 인간 공동체들과 문화들의 풍부한 다양성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음을 본다. 이 모든 활동들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중심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다양성을 풍성하게 해야 할 그 곳에 죄가 깊은 소외의 골짜기를

형성하고 있다.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의 갈등은 인종과 민족들의 경계에 따른 폭넓은 소외에 대한 증거이다. 안타깝게도 기록된 인류 최초의 이야기는 인종과 민족의 계보에 따라 사람들이 소외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c. 잘못 해석된 두 본문

죄가 인간 공동체의 인종적, 민족적 다양성에 미친 영향에 대한 본 논의에서 두 개의 성경본문을 언급할 가치가 있다. 여기서 요점은 그 두 본문이 인종적, 민족적 다양성에 대해 말할 필요가 없는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다.

1) 함이 저주받다

창세기 9-10장이 전해주는 노아의 아들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고 번영을 약속받지만 가나안은 그 아버지 함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 가나안은 그 형제들에 대해 가장 천한 노예가 될 것이다(창 9:25). 때때로 흑인들을 노예로 삼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 구절이 이용되었다. 그 이유는 함의 자손들이 여러 지역 중에서 결국 아프리카 동북부에 정착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여기서 저주받은 이들이 가나안 족속이며 따라서 백인이라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또한 창세기 9-10장 (창 10장은 열방의 계보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다) 기사의 목적이 인간 압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홍수 이후부터 아브라함에 이르는 구속적 계보, 즉 셈을 통해 세워지는 한 계보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는 중요한 주해상의 핵심을 간과하고 있다. 우리가 이 애매한 창세기 단락에 대해 설명하는 이유는 앞에서 논박한 해석이 너무 강력하고 그럴싸 해서 방대한 논박이 필요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포함시킨 이유는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수탈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성경을 어떻게 오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개탄스럽게도 이처럼 오류가 있는 성경 해석들이 그 주석적인 기반이 반박된 이후에도 얼마나 오래 동안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완고하게 자리잡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삽입하였다.

2) 바벨탑 사건

흔히 오해되는 또 다른 성경기사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다. 바벨탑 기사의 목적은 하나님 없이 공동체를 세우려는 인간적인 시도들의 헛됨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바벨에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신 일은 인간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지, 다양한 언어 안에 근본적으로 어떤 죄악이 내재해 있다는 표시가 아니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공동체를 세울 수 없다. 우리의 주제와 관련하여 바벨의 긍정적 의미는 오순절 사건을 바라볼 때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d. 소외의 뿌리: 두려움

인간의 소외는 어떤 계통에서 발생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결과로 생겨난 두려움과 불안정과 정체성 상실이 그 배후에 놓여 있다.

여기서 시사적인 것은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인간이 죄에 빠진 타락에 대한 이야기이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을 때, 그들은 즉시 두려움에 빠졌다. 그들은 무화과 나뭇잎을 껴어 상대를 피해 숨었으며(창 3:7), 하나님을 피해 동산의 숲 속에 숨었다(창 3:8).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될 때 올바른 자기 이해를 상실한다. 칼빈이 <기독교강요>에서 지적했다시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자기에 대한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을 모르면 자신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사상의 토대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적절한 자기이해를 상실하면 두려움과 걱정이 생긴다. 자기이해의 이러한 위기에서 우리는 종종 자기긍정과 자기이해를 위해 인종·민족·문화적 이해에 호소하게 된다. 이러한 형태의 자기확인 은 불완전하며 왜곡되어 있다. 인간은 그러한 자기 이해를 쉽사리 절대화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간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형태의 자기확인은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수단이 되곤 한다. 개인·집단 간의 차이점이 커질수록 두려움도 증가하며, 두려움과 차별화의 순환은 더욱 더 반복강화된다. 그것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은 고통과 불행과 낙담이다.

요한은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요일 4 : 18)고 말한다. 이 진술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요일 4:16)는 요한의 말 다음에 이어 나온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만이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걱정을 내어쫓는 새로와진 정체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는 불건전하고 위태로운 것들을 거절할 수 있게 한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만이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과 다른 사람들을 새로운 면에서 바라볼수 있도록 한다. 하나님의 그 구속적인 사랑을 살피보도록 하자.

새 창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 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라고 바울은 말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시게 되었다. 다음의 고찰에서 우리는

인종 및 민족 노선 간의 화해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부수적으로 덧붙여지는 어떤 끝가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그 계획의 중심에 존재함을 살펴보고자 한다.

5.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연합하는 것은 모든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중심에 있다.

에베소서의 첫 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모든 세대에 걸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폭넓은 전망 안에 자리매김을 하고자 한다. 그 장들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중요한 헬라어 단어 하나는 “경영, 행정, 혹은 계획”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는 “오이코노미아”이다.

a. 에베소서 1:9-10에서 즉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펼쳐지고 있는 위대한 구원사역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송 중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쁨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엡 1:9-10).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세우셨던 그 계획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다.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의 범위를 묘사할 때 할 수 있는 한 가장 포괄적인 말을 사용하고자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를 살펴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만물이]). 그리고 그 구원사역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것을 하나로 만드는 것, 즉 만물이 태초에 그리스도 안에서 가졌던 그 하나됨을 만물에게로 회복시켜주는 일이다.

b. 에베소서 3:2에서 바울은 다시금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에 대해 언급한다.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6절에서 바울은 그 비밀에 대해 말한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다. 헬라어 접두사인 ‘sun’(함께)은 6절에 세 번이나 등장하여 (문자적으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하나님의 역사에 담긴 하나됨의

취지를 강조하고 있다.

c.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3:8-10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 모든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 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취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다시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길 없는 부요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선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6. 하나님과 화해하고 인간끼리 화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떼어 놓을 수 없는 것이다.

화해(*katallassoo*)이란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자주 쓰인 말은 아니지만 바울 서신에서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인종적, 민족적으로 다양한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성경적 비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우리의 목적에 합당한 네 가지 중요한 본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a. 로마서 5 : 10-11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해되었은즉 화해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해를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첫째로, 화해가 우리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유 사역이라는 점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독교 이외의 종교들은 사람들이 자력으로 화해하려고 애쓴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화해를 시작하신다. 둘째로, 다른 모든 화해 본문에서처럼 이 본문에서도 죄는 “죄책”이나 “오염”이라기 보다는, 비록 그런 면이 없지는 않지만,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것이 죄라고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죄의 정체는 관계와 공동체의 붕괴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셋째로, 다음에 고려할 본문들과 달리 이 로마서 5장에서는 “신자들”이 하나님이 화해하시고자 하는 “대상”으로 언급된다.

b. 고린도후서 5:8-21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 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첫째,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화해의 “대상”이 “세상”이라는 점을 주목하라.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 (가시계와 비가시계) 전체와 대비되는 인간세계로서 우선적으로 명백히 이해된다. 여기서 세상은 기존 신자들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화해의 메시지에 믿음으로 대답해야 할 사람들도 포함한다. 따라서 이 사실은 하나님의 화해 프로그램에 강력한 선교적 특징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두 번째 관찰로 연결된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화해 사역에 부여하시는 전략적 역할에 주목하기 바란다. 바울은 이 단락에서 두 번씩이나 (18절과 19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에게 이러한 화해 사역을 주셨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바울은 하나님의 화해 역사와 더불어 자신의 화해 사역을 자리 매김하고 있다. 교회의 화해 사역은 인간적 생각이나 정치적 의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화해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이다.

c. 골로새서 1:19-22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해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해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 구절들은 상이한 문학 장르를 여럿 포함하고 있어서 해석하기가 더 어렵다. 즉 15-20절은 기독교 초기의 찬송시인 것이 거의 확실하며, 그 다음에 바울은 찬송에 담긴 진리를 골로새 교회의 상황에 적용하는 구절들을 덧붙였다(21 절 이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단락에서 하나님의 화해의 “대상”은 로마서 5장처럼 “믿는 자들” 뿐만이 아니라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을 명백하게 포함하고 있는 “만물”(ta panta)임이 분명하다. 이처럼 하나님의 화해 프로그램은 창조 세계만큼이나 드넓다. 세계 창조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통하여,” 그를 “향하여”(en, dia, eis)

창조되었듯이, 화해의 역사도 그리스도 “안에서” “통하여” “향하여” 존재한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 15-20절이 찬송가라는 사실은 아마도 20절에 담긴 보편주의적 선언들을 이해하는데 중요할 것이다. 그 찬송시의 선언들은 신학적 분석거리를 제공하고자 쓰여진 것이 아닐 것이다. [교부 오리겐의 보편주의가 이 구절에 근거해 있을 것이라고 믿는 이들도 있다.] 이 찬송시는 구원의 범위를 상술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창조와 구속의 증보자”인지 환호하려고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따라서 “만물을 자신과 화해시킨다”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에서 화해되어져야 할 모든 만물의 구속자요 화해자가 되신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이 본문의 요점은 골로새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밖에서 어떤 화해의 수단도 추구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d. 에베소서 2:14-16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구절에서 다른 본문들에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았던 유일하게 가장 큰 새 요소는 하나님의 화해 프로그램이 단순히 수직적이기만 하지 않고 (믿는 자들/세상/모든 만물을 자신에게 화해케 하는 관계) 수평적이기도 하다는 것이다(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무할레자들”과 “할레자들”을 화해케 함, 11절). 그들 사이를 갈라놓았던 것은 “적대감”으로 확인되는 분리적인 벽이다. 따라서 NIV성경에는 정확하게 “분리시키는 적개심의 벽”으로 번역되어 있다. 그리스도는 그의 육체로 “계명들과 규례들과 더불어 그 율법”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개역한글)을 “폐지”(무효화시킴)하심으로써 분열시키는 적개심의 벽을 “무너뜨리셨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무효화하셨는지, 폐하셨는지를 논한 게 아니다. 바울이 다른 곳에서 말한 내용에 미루어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통해 율법을 성취하심으로써 그렇게 하셨다고 추측할 수 있다. 즉 그리스도는 능동적으로는 율법에 순종하심으로써, 수동적으로는 인류의 죄악에 대한 율법의 저주를 스스로 짊어지심으로써 율법을 성취하셨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온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에 율법은 결코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의 “적개심”의 원천이 될 수 없다. 특히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표시해 주는 것”으로 여겼던 할례와 정결하고 불결한 음식, 절기들(주로

안식일)에 관해 그러하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둘, 즉 “할례자”와 “무할례자”로부터 “하나의 신 인류”를 창조하셨다. 여기에서 “한 신 인류”는 집합적 의미로 이해되어야 하며, 거의 교회와 같은 말이다. 이리하여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며”(엡 2:14), “화평케 하시며”(엡 2:15),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이방인들]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유대인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엡 2:17).

우리 인간은 종종 인종과 민족에 따라 사람들을 구분하지만, 하나님은 일찍이 사람들 가운데 오로지 한 가지 구분만을 두셨으니 이른바 이스라엘과 열방이 그것이다. 이 단락에서 숨막히는 뉴스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인간 가족 가운데 만드셨던 그 유일한 구분을 이제 제거하셨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그 요점은 분명하다: 만약 하나님 자신이 인간 가족 내에 세우셨던 그 유일한 구분을 제거하셨다면, 인간 가족 내에 존재하는 인간이 만든, 다른 모든 “인위적” 구분들은 치워버려야 마땅하다.

7. 이미 옛 언약에서의 하나님의 선교의 범위는 인종적, 민족적으로 포괄적이었다.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오해 중 하나는 그리스도 이전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선교의 범위는 오로지 이스라엘 민족에 국한되었으며, 그리스도의 오심과 더불어 신약에 이르러서야 모든 민족들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생각이다. 옛 언약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교의 구속적 초점이었다. 그 운동은 항상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으며, 그 왕을 향하고 있었다. 새 언약에서 오순절은 하나님의 선교의 방향을 외부로 돌리고 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는 대신에 성령은 사방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나가신다. 하나님의 선교의 “에너지 파장”은 구심성에서 원심성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 안에서 이러한 극적인 발전들을 하나님의 선교의 우주적/보편적 범위와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선교의 범위는 항상 인종적, 민족적으로 포괄적이었으며 지금도 그러하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처음부터 모든 민족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가 “크고 강력한 민족이 되고 지상의 모든 민족들이 그를 통하여 복받게 될 것”을 약속하셨다(창 18:18). 그리고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셨다(창 26:4). 이사야는 모든 민족들이 여호와의 전에 모여들 그 날이 장차 있을 것을 바라본다(사 2:2).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사 56:7)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사야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 이니라”(사 60:1) 하고

의칠 때, 이어지는 비전은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는 것에 대한 한 장 전체의 비전이다: “열방은 네 빛으로, 열왕은 비취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사 60:3).

구약의 선지자들은 민족적 신분이 영적 신분에 종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다. 민족은 언제나 야훼 하나님의 왕권의 끝에 놓여져 있다. 예루살렘은 야훼가 거기 계시기 때문에 의미있다. 육체적 할례는 한 사람이 하나님 백성의 일부가 되기에 충분한 조건이 결코 되지 못한다. 모세와 예레미야는 그 백성에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촉구했다(신 10:16; 렘 4:4).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자체의 생물학적 능력에서 나온 산물이 아니다(사라는 불임이었다). 하나님은 심지어 유업 대물림의 정상적인 순서도 뒤바꾸셨다(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선교를 이스라엘 민족과만 동일시하는 그릇된 행태와 자민족중심주의에 대한 일종의 심판이다. 시편은 여호와와 이름의 찬송하는 모든 민족과 열방에 대한 언급으로 가득차 있다. 예수님의 가계(마 1:1-17)는 라합, 룻과 같은 사람들에게 대한 언급과 더불어 하나님의 선교의 범위가 이미 옛 언약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 뻗어나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하거나 이 원칙을 서술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선교 내부에서의 극적인 발전들을 평가절하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교의 범위상의 변화에 관하여 잘못된 생각들을 잘라 내는데 있다.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이 하나님의 불변의 의도와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 민족성의 역할에 대해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도록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8. 오순절에 교회에 부여하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새로운 권능, 즉, 분리의 벽을 허물고 인종과 민족과 문화의 구분들을 초월하는 공동체를 창조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신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 라고 말씀하셨다. 전세계적인 선교에 대한 이 예언은 마태복음 28:19-20의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에 뒤이어진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 그 날에 교회에 부여했을 때, 하늘 아래 모든 족속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사도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사도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 요엘에 의하여 예언되었던 그 여호와와 날이었다 (행 2:17-21).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을 것이다”(행 2:21).

성경에서 오순절 성령강림의 복은 바벨에서의 저주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바벨에서 언어를 혼잡케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없이, 하나님없는 인간공동체를 세울 수 없음을 선언하신다.

오순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하신다. 이 새로운 공동체에서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각자의 언어들을 뛰어넘는 하나됨(통일성)을 가지게 된다. 오순절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단 한 가지 언어를 말한다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다양한 언어들을 말한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하나됨을 창조하신다. 인종적, 민족성, 문화적 차이점들은 지워져버린다. 그러한 차이점들은 성령 안에서 믿는 이들이 가지게 되는 새로운 하나됨에 종속된다.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은 이 성령의 시대에서 교회가 어떻게 보일 것인지를 베드로에게 보여주신다.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것과 불결한 것,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옛 구분들이 폐하여졌음을 베드로에게 계시하신다(행 10:15). 그리하여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도를 전한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누구도 불결하다거나 순결치 않다고 칭하지 않으신다고 말한다(행 10:28).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삶은 하나님이 받으신다”(행 10 : 34-35).

바울은 이 새로운 연합과 하나됨이 사람들 가운데 있는 모든 구분들을 초월하며 심지어 아브라함의 자손과 나머지 인류 사이의 구분도 초월하는 것임을 보고 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갈 3:28-29).

9. 통일성과 다양성 가운데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새 창조를 이룩하는 하나님의 전략적 수단이다.

교회는 이 새로운 연합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존재한다. 에베소서 3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하나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준다. 8-11 절에서 바울은 교회가 그 계획에서 맡은 역할을 이렇게 설명한다:

...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 [하나님의 의도] 은 ...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취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교회는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여진 몸으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하나되게 하시는 수단이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느냐에 대해 말씀하신다. 예수는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도록” (요 17:20-21) 기도하신다. 어째서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들이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그 이유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고, . . .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요 17:21, 23)는 것이다. 교회가 하나님 때, 사람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본다. 교회의 증거의 권능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회의 새로운 하나님됨, 외적인 차이점들을 초월하는 성도들의 하나님됨에 놓여져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교회에 대한 비전을 교회 스스로가 이해하고 살아갈 때에만 교회는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즉 선교에 효과적이 될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고전 1:10-17; 12:12-13). 그리스도는 교회의 유일한 기초이며 (고전 3:11), 그 몸의 유일한 한 머리이다 (엡 1:22-23). “몸이 하나 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엡 4:4-6). 교회는 동시에 놀라우리 만큼 다양하다. 몸에 발과 손과 눈과 귀가 있으며 그와 같은 지체들이 없이는 불완전 하듯이, 그리스도의 몸도 많은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몸의 각 부분이 몸의 완벽한 효과적 기능을 위해 필수적임과 모든 부분들이 그 크기와 기능에 상관없이 똑같이 귀중함을 가르친다. 교회에 대한 성령님의 은사들은 놀라우리만큼 다양하다 (고전 12:27-31; 엡 4:11-13; 롬 12:3-8).

교회의 통일성과 다양성에 대한 이러한 교훈은 교회의 인종적 민족적 다양성의 문제들을 생각할 때에 지극히 중요하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촉구한다, 이것은 단지 이론상의 하나됨이 아니다. 이 하나됨은 사람들 간에 눈에 보이게 실질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공통 근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하나됨은 세상이 그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될 만큼 실제적이다 (요 17:32). 하나됨에 대한 이 성경의 촉구는 하나됨이 결여된 교회를 심판하고 있다.

그러나 연합은 차이점을 없애지 않는다. 오히려 전체를 이루기 위해 몸은 각 지체들을 필요로 한다. 인종상, 교회가 하나됨의 목적은 그러한 차이점들을 부인하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틀에 따라 똑같이 만드는데 있지 않다. 우리들 각각은 개별적으로 독특한 인종, 민족성, 문화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교회의 한 몸이 될 때에 우리는 한국인이나 케냐인이나 미국인인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독특한 각 개인과 공동체는 그 몸을 온전하게 하나로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한다. 각 개인과 공동체는 독특한 은사들을 가지고 와서 독특한 기여를 한다. 성령 안에서 다양성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고 오히려 전체를 풍부하게 만들어준다. 하나됨은 다양성과 함께 진실로 교회가 우리 자신의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주님의 역사의 결과임을 확증하는 것이다.

우리가 위원회로서 연구를 진행할 때에 우리는 교회의 통일성과 다양성이 분명하게 이해되지 않는 혼란에 부딪혔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것을 말할 때에 개인의 문화를 중요하지 않게 말하거나, 그 문화를 존중하고 말하기도 한다. 어떤 때는 이 두 가지를 같은 맥락에서 말하기도 한다. 실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우리의 문화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우리의 문화를 버려야 한다는 식의 말들은 우리가 문화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한 말이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이탈리아인이었던 사람은 믿은 후에도 여전히 이탈리아인이다. 중국인 형제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음식에 대한 그의 기호가 갑자기 다른 기호로 변하지는 않는다. 미국 원주민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그의 음악에 대한 취향이 갑자기 다른 음악의 스타일로 바뀌지 않는다. 인종, 민족성, 문화는 개인과 공동체의 자기 정체성에 있어서 지극히 중요하다. 그러한 것들은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이나 그 이후에나 언제나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이전의 가졌던 불완전한 자기이해를 변화시킨다. 한 쿠바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더라도 그 사람은 여전히 쿠바인이다. 그러나 이제 그 사람의 그리스도인됨은 그 사람의 쿠바인됨을 형성시킨다. 우리가 어떤 인종과 민족 집단과 문화에 소속되기를 그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우리가 지금 누구인가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리스도가 개인과 공동체의 자기이해에 있어서 결정적이다. 인종, 민족성, 문화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이해에 가장 중요한 근거가 아니다 - 그 가장 중요한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문화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버릴 것을 요구하신다. 이 때 어려움은 새로 그리스도인된 사람들이 고정적으로 새로운 문화적 유형들을 채택한다는 데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 유형들은 흔히 꼭 기독교적이라고 말할 수 없이 다른 문화 집단들에 의해서 형성된 것들이다.

중요한 것은 다른 배경들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잡한 문제들을

헤쳐나갈 때에 교회의 통일성과 다양성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시키는 것이다. 정당한 다양성을 희생시키면서 교회의 통일성을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모든 문화적인 차이점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극단에 치우치게 만들 수 있다. 반대로, 교회의 통일성을 무시하고 다양성을 강조하게 될 때 인종과 민족성과 문화에 중요성을 부과하는, 심지어 우상적인 자율성을 부과하는 극단에 치우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둘을 십자가에서 이미 제거해 버리셨다.

신앙고백서들도 교회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표현해주고 있다. 벨직 고백서 제 27항은 “하나의 유일한 보편적 교회”에 대해 언급한다. 보편 교회는 비록 “전세계에 퍼져나가 흩어져 있지만” “여전히 믿음의 능력에 의하여 동일하신 한 분 성령님 안에서 마음과 뜻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통일되어 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는 제 21주일에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시작부터 끝날까지 전체 인류에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 선택되고 참신앙으로 하나된 한 공동체를 몸소 모이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공동체에 나는 지금 살아있는 한 지체이며 언제나 그러할 것입니다.

교회는 인류만큼이나 다양하며 동시에 그리스도만큼이나 단일하다.

10.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를 섬김으로써 근본적인 정체성을 찾으라고 권면하신다.

불행스럽게도, 교회에서의 인종적, 민족적, 문화적 차이점들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기회로 삼아 옳지 않은 태도와 행동들을 정당화하려는 기도(企圖)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한 태도들과 관행들과 행동들은 불필요하게 사람들 사이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제거하셨던 장벽들을 만들어내고 분리를 더한다는 점에서 최악된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공동체를 풍요롭게 만드는 건강한 민족적 문화적 자기 정체성과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민족중심주의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복음의 요청은 명확하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마 22:37-40). 예수님은 자기 아비나 어머니 아들이나 딸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신다 (마 10:37).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잃을 때 비로소 우리의 목숨을 찾게 된다 (마 10:39). 예수님은 원수들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 하라고 권면하신다 (마 5:44).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대단한 선행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 못된다”는 말로 풀 수도 있을 것이다).

이방인들조차도 이러한 일을 한다. 복음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바울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익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익까지도 돌아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빌 2:4). 그리고 우리가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모델로 하여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빌 2:6-11).

분명 예수님은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사역하는데 대한 자신의 헌신에서 이러한 종류의 행동의 본을 보이셨다. 실제로 예수님은 기성 종교계가 “죄인들”이라고 간주했던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즐기셨다 (눅 15:2; 눅 7:36-50).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기꺼이 복음을 전하셨다 (요 4:1-26). 예수님은 로마인이었던 백부장의 믿음에 응답하셔서 이 이방인의 아들을 고쳐주셨다 (눅 7:1-10).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가운데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민족 중심 주의적인 눈길에 의하여 열등하며 은혜를 받을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졌던 한 사람(사마리아인)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 말씀 하셨다. 예수님의 사회적 세계와 사역의 세계는 인종, 성별, 민족, 문화, 혹은 사회적 지위의 노선들을 초월하였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외적인 특징들을 초월하시고 사람들을 하나님 형상을 지닌 사람들로 보셨던 것이다.

인종, 민족, 문화가 자기 정체성 확인에 중요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를 섬김으로써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을 발견한다. 복음은 자기 정당화와 자기 보존을 위한 것이 아니다. 복음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면서 우리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자기에 대한 자만을 키우거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을 키우는 태도가 들어설 여지(餘地)가 전혀 없다.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갖게 되는 안전 가운데서 “자기를 잊게”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낸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인종과 민족과 문화에 의해서 세워졌던 장벽들을 자발적으로 뛰어넘고 무너뜨리며, 불건전한 심지어 위상숭배적인 자기 긍정의 방법들을 거부한다.

11. 인종간의 화해 문제에 있어서의 순종은 개인적으로와 집단적으로 끊임없이 회개하고 정의를 추구하며 악의 권세들과 싸울 것을 우리에게 촉구한다.

우리는 인종차별이 죄악이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인정해야 한다. 인종주의는 단순히 나쁜 태도가 아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어떠한 태도나 말이나 불건전한 행위나 저지르는 행위는 하나님께 대한 죄악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죄악이다. 인종차별은 문화시민의 수치이다. 그러나 인종차별은 교회에서는 더욱 큰

수치이다. 그 까닭은 인종차별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룩하신 화해케 하시는 사역을 통하여 전하시고 있는 그 메시지와 정확하게 반대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 6계명과 제 7계명에 대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는 어떻게 인종차별이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배치(背馳)되는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제 6계명에 대한 설명이다.

나의 생각으로나 나의 말로나 나의 표정으로나 제스처어로나 그리고 확실히 실제 행위로나, 나는 나의 이웃을 멸시하거나 모욕하거나 미워 하거나 죽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하는데에 동참하지 않겠습니다 (문답 105).

그리고 제 9계명에 대한 가르침에서 요리문답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어느 누구에 대하여도 내가 결코 거짓 증거를 하지 않는 것이며, 어느 누구의 말도 왜곡하지 않는 것이며, 비방하거나 중상 하지 않는 것이며, 들어보지 않고서 혹은 정당한 이유없이 어느 누구라도 정죄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법정에서나 다른 어느 곳에서든지 나는 온갖 종류의 거짓말과 속임을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마귀가 직접 사용하는 발명품들이며 그것들은 내게 하나님의 강력한 진노를 불러내리는 것입니다. 나는 진리를 사랑해야 하며, 진리를 분명하게 말해야 하며 공개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이웃의 명예가 보호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문답 112)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분석하면서, 바울은 우리의 상실된 마음 가운데서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속임과 악독”을 보고 있다. 하나님으로 부터 소외된 사람들은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이다 (롬 1 : 29-31).

진실로 인종차별은 우리의 죄악된 상황에 대한 확실한 증거이다. 바로 그것을 뿌리뽑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뿌리뽑히지 않은 채 존재할 때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의 그리스도의 화해케 하시는 사역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죄악으로부터의 회개는 모든 회개가 그렇듯이 근본적이어야 한다. 이 회개는 십자가 아래서 고백과 자기 부인으로 시작한다. 진실로 요리문답에 따르면, 죄에 대한 회개는 “죄에 대해 진정으로 슬퍼하며 죄를 더욱더 싫어하고 그 죄로부터 멀리 떠나가는 것”이다. (문답 89)

이러한 회개는 기독교 공동체 편에서의 맹렬한 기도를 요구한다. 우리들의 기도가 우리의 깊은 관심을 드러내는 만큼, 기독교 공동체는 인종차별의 죄악들에 대한 정기적인 고백기도와 인종간의 화해와 치유를 위한 정기적인 중보 기도를 행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인종차별적, 민족주의 노선을 따라서 소외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들에 전혀 가담해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인종간 화해를 일구어내는 노선과 행동을 같이 해야 한다. 인종간 화해 문제에 대해 교회가 귀를 막고 입을 막고 있는 모습은 무너져야 한다. 이렇게 인종적으로 양극화되어 있는 세계에서 제자됨에 대한 정당한 하나의 테스트는 우리의 생활과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인종간 화해와 이해를 건설하며 소외의 장벽들을 무너뜨리는지 아닌지에 달려 있다.

에베소서 3:9절과 10절은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한다”고 말하고 있다. 에베소서 6:12에서 바울은 바로 이 정사와 권세들이 우주적인 싸움에서 우리를 대항하여 싸우고 있다고 말한다. 교회는 인종·민족간 분열이 너무나도 뿌리깊고 사탄적이며 만연되어 있어서 그에 대항하여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온갖 영적인 전쟁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화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기 위한 교회의 투쟁에 있어서, 악의 권세들은 우리를 다시금 분열시켜서 통일에 대한 우리의 모든 노력들을 무력화시키고자 기도(企圖)할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힘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지지하지 않는 기도로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 채택됨

12. 그리스도인들은 만물의 화해가 충만히 실현될 그 날을 소망하면서 생활하며 일한다.

이 성경적 연구의 서두에서 우리는 창조-타락-새창조의 주요 삼분에서 새 창조는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죽으심-부활로 시작되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되는, 그리스도의 재창조와 화해의 사역을 가리킨다는 점을 설명했었다.

현재의 세상과 그리스도께서 재림 시에 이룩하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한 가지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의 초림 사역은 역사상 결정적인 순간이다. 히브리서의 기자에 따르면(히 1:2), 선지자들이 언급했던 그 “마지막 때”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 성령에 대한 약속(을 2:28)은 오순절에 부어지심으로 성취되었다. 바울은 “만약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역사상 결정적 전환점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앞에 놓여 있는 모든 것은 단순히 이미 그리스도께서 성취해 놓으신 바에 대한 실현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신약성경을 보면, 그 나라의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어떤 긴장이 존재한다. 그리스도의 새 창조는 이미 우리에게 드러났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실현된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다스림의 충만한 실현을 고대한다. 우리는 지금 세계의 어그러짐과 “다시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장래 그 날 사이에 한 가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안다. “처음 것들 [옛 사물질서]이 다 지나갔음이다”(계 21:4).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고후 5:7). 우리는 다시 오실 구세주를 열심히 앙망한다(빌 3:20).

성경의 신천신지 비전의 중심은 땅 위의 모든 민족과 족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통일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바라본 요한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 보좌 앞과 어린양 앞에 선” 것을 본다(계 7:9-10). 천사들은 새로운 노래를 부른다: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계 5:9-10). 그리스도 안에서 만국과 만물의 화해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열렬한 소망이다.

이 비전은 그리스도인들, 특히 세상에서 인종·민족간 분열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격려를 준다. “아멘,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부르짖음은 만물의 이 새로운 하나됨을 보지 못한 사람들과 그리스도께서 폐지하러 오신 그 분리의 장벽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이다. 장차 언젠가 하나님께서 만물을 바로잡으실 거라는 사실은 그 나라의 살함과 의로움을 별로 맛보지 못했던 많은 이들의 가장 깊은 소원이다.

이 비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확신을 준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고 실망할 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만물이 어디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가를 알고 있다. 우리는 장차 어느 날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큰 확신으로 살아간다.

골짜기마다 돌우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사 40:4-5).

IV. 건의 사항들

위 보고서와 관련하여 다음의 건의 사항들이 1996년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 A. 총회가 교회들에게 개정된 보고서의 검토를 권고하도록.
- B. 총회가 인종적·민족적으로 다양하면서 하나된 하나님의 가족의 발전에 관한 다음의 성경적·신학적인 원칙들을 채택하도록.

인종적·민족적으로 다양하며 하나된 하나님의 가족의 성장을 위한 성경적, 신학적 원칙들

창조

1.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풍성하며 그 다양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2. 모든 다양성을 가진 창조 세계는 한 분 하나님 안에 그 통일성을 가지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세계를 창조하셨다.
3. 인류와 창조된 실재의 통일성과 다양성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반영한다 (즉 하나님의 하나이심과 세 분되심).

타락

4. 죄의 근본적인 영향 한 가지는 공동체의 파괴이다.

새 창조

5.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물의 통일은 모든 시대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의 중심에 있다.
6. 하나님과의 화해와 인간 상호간의 화해는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있어서 서로 분리될 수 없다.
7. 이미 옛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선교의 범위는 인종적으로와 민족적으로 포괄적이었다.

8. 오순절에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새로운 권세, 분리의 장벽들을 무너뜨리고 인종과 민족과 문화의 분열들을 초월하는 공동체를 창조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
9. 교회는 새창조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구현시키고 선포하며 증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적 수단이다.
10.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분을 섬김으로써 근본적인 정체성을 발견하라고 요구하신다.
11. 인종간의 화해의 문제에 관련하여 순종은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계속해서 회개하고 정의를 추구하며 악의 세력들과 싸울 것을 요청하고 있다.
12.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만물의 화해가 충만하게 실현될 날에 대한 소망 가운데 나아가며 일한다.

C. 이상의 원칙들에 근거하여 본 총회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이 원칙적으로 인종·민족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공동체로서 화해 되는 것임과 이 원칙을 체험적 실재로 바꾸라는 주님의 소명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개혁주의 고백서들에 의거하여 죄악임을 선언한다.

근거들:

1. 앞의 보고서는 성경이 이 화해된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고 있다.
2. 고백서들은 교회의 보편성이 그리스도가 “인류 전체에서” 교회를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 주의 날 21).

D. 총회는 다음과 같은 일에 전적으로 헌신함으로써 인종적으로와 민족적으로 다양하며 통일된 하나님의 가족의 발전에 관한 성경적이며 신학적인 원칙들에 대답하도록 CRCNA 산하의 **전체 교회와**, 성도들과, 사역 기관들과 기타 기관들에게 촉구한다.

1. 캐나다와 미국의 인종적 민족적 다양성을 좀더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CRCNA 안에 소수민족계의 사람들이 증가하도록 기도하고 일할 것.

2. 교단 전체의 모든 수준에서 영향력 있는 지도자 자리와 다른 역할들에 소수계 사람들이 동등한 대표성을 확보하고 의미 있는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주: **CRCNA** 안에 총 5퍼센트의 소수계 구성원 비율은 캐나다와 미국의 대략 20퍼센트 정도의 소수계 인구비율에 비교된다.

E. 본 총회는 교회들에게 다음과 같은 일들을 촉구한다.

1. 설교와 가르침과 앞의 성경적이며 신학적인 원칙들에 대한 공부를 통하여 인종·민족적으로 다양하면서 통일된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성경적인 비전을 표명할 것.

2. 그들의 인종적 민족적 구성, 그 구성에 기여하는 사회적 요인들, 그들의 지도자들의 선별과 훈련, 그들의 예배 스타일, 교회 구성원들과 그들 공동체에 대한 그들의 사역에 대해 하나님께서 교회 회중으로서 그들에게 주신 비전과 소명에 대한 그들의 의식에 비추어서 그들의 삶과 사역을 평가할 것.

3. 적절한 모델과 전략들을 모두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인종·민족적으로 다양한 회중들을 성장시킬 것.

- a. 민족·문화적으로 더 포용적이 되어가는 기존 교회들.
- b. 다민족 회중교회의 개척과 성장.
- c. 같은 건물이나 다른 건물들을 사용하여 민족적으로와 문화적으로 그 부모들 세대의 회중과는 다른 새로운 회중들을 보조할 것.
- d. 다른 민족적 문화적 배경들을 지닌 회중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것 (예를 들어서, 연합 예배, 워크숍, 사업 프로젝트 등을 통하여).
- e. 국내외에서 인종간 화해에 헌신된 사람들과 프로그램을 보조할 것.

4. 인종차별과 편견과 그와 관련된 해고와 가난, 불공평 등에 대해 공적으로 반대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음을 증거할 것.

5. 이웃들과 직장들과 공동체들에서 인종상호간 관계와 문화교류 관계를 발전시키고 정립해나가도록 성도들에게 권장할 것.

F. 본 총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하기 위해 CHCNA의 사무국들과 기관들의 협조와 더불어 노회들에게 다음의 사항들을 요청한다.

1. 향후 12개월 동안 이 보고서와 이 보고서가 교회들과 그 사역에 대해 지니는 함축들에 대해 노회 수준에서의 세심한 연구를 배정할 것.
2. 노회의 지도하에 있는 교회들과 사역지에 공개 포럼과 학습 이벤트와 다회중 예배기획 및 연합 타문화 기획 사역 등을 통해 인종적·민족적 다양성(과 동일성)에 대한 협조를 제공할 것,
3. 민족적 다양성과 인종간 화해에 헌신하는 새 교회들과 기타 전도 사역들을 개발·지원하는 교회들에 대해 협조할 것.
4. 총회 대의원과 기관상임위원회와 **CRCNA**의 다른 사역부서들을 포함하여 노회의 사역에 참여하도록 소수계 집단 출신의 사람들을 모집하고 협조해 줄 것.

G. 본 총회는 **CRCNA** 교단의 지도자들의 지도 아래에서, 관계 부서들, 즉, 민족 관계 부서와 목회 사역자들과 다른 기관들의 협조를 얻어서 **이사회**가 다음 사항을 행하도록 요구한다,

1. 위에 상술된대로 민족적 다양성과 인종간의 화해를 지원하고 있는 교회들과 노회들에게 지도와 협조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들의 역할과 대처에 협력하고 감시할 것,
2. 1998년 총회에서 노회와 총회와 이사회와 교단산하 기관들과 **CRCNA**의 기타 사역지의 지도적 지위와 영향력있는 다른 역할들에 소수계 인물들의 공평한 대표성과 의미있는 참여를 확보하는 일에 대한 충고와 권고를 담당해 줄 것. 권고에는 잠정적인 전략과 장기적인 전략, 훈련과 지원의 필요성, 재정적인 함축들, 그리고 노력과 진행사항에 대한 총회에 대한 정기적 보고가 포함되어야 함.
3. 년마다 열리는 다민족 컨퍼런스가 **CRCNA** 내의 민족적 다양성과 인종간 화해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욱 완벽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교회-노회-총회를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탐구할 것.
4. 소수민족 목회자들을 훈련·신임·보상하는 일과 관련하여 **CRCNA**의 정책과 관행을 재고하고 앞서 언급한 대로 건의사항과 조언을 제공할 것.

H. 본 총회는 **장래 총회들**에 대해 다음 사항들을 신중하게 권면한다.

1. 인종·민족적으로 다양하며 통일된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성경적 비전에 대한 표현과 축하를 총회 예배 때에 포함시킬 것.

2. 교단 정치의 제반 측면에서 민족적 다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권고사항과 구체적인 실천지침들의 개발을 격려하고, 일반적인 교단간 관계와 특별히 개혁주의 에큐메니칼 협의회(Reformed Ecumenical Council)의 사역을 포함할 것.

3. 위의 결정들에 대한 교단적인 대처를 이사회 임시의 진행 보고에 토대하여 1998년 총회에서 재고하도록 할 것.

I. 위의 결정 사항들에 대한 교단적 대처를 2000년도 총회 이사회 임시의 조언과 건의사항을 담은 진행 보고서에 비추어 2000년도 총회에서 재고하도록 한다.

J. 총회는 이사회로 하여금 본 연구를 교단 내의 여러 언어로 번역하도록 요청한다.

K. 총회는 칼빈 신학대학원의 모렌 컨퍼런스 위원회에 요청하여 인종간 화해의 신학적 의미와 사역과 목양, 교회론과 사회정의에 대해 지닌 함축성들을 탐구하기 위한 “회개와 정의를 수반한 인종·민족간 화해”에 대한 컨퍼런스를 조직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한다.

근거들:

1. 위의 보고서에 비추어 불 때 회개를 수반한 인종간 화해가 시급하다.

2. 개혁신학자들은 이 쟁점을 다룰 수 있는 역사적·신학적인 입장에 있다.

3.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개혁교회는 현재 그러한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

